



ESG 금융동향과 시사점

이슈리포트(ISSUE REPORT)



ESG 금융 동향과 시사점

금융·보험ISC 2021년 2분기 이슈리포트

<요약>

□ 논의 배경

- ▶ 최근 금융에서 ESG에 대한 인식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확산하며, ESG 금융 확대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음
- ▶ ESG에 관한 금융업계 외부의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금융인력의 공급개발 측면에서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 ESG 관련 최근 금융 동향

▶ 글로벌 ESG 투자자산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

- UN 사회책임투자원칙(PRI) 서명기관 및 이들 기관이 대표하는 전체 자산운용 규모는 2020.3월 기준 동기 대비 각각 29%, 20% 증가
- 최근에는 국내 녹색채권 발행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공공기관에 편중돼 있던 ESG 채권발행은 일반기업으로 확대 추세

▶ ESG 금융상품

1) ESG 채권 : 녹색채권, 사회적 채권의 발행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 녹색채권 발행규모: ('07년) 8억 달러 → ('13년) 113억 달러 → ('19년) 2,589억 달러(284조원),
사회적채권 발행규모: ('18년) 150억 달러 → ('19년) 190억 달러

2) ESG 펀드

- 글로벌 ESG 펀드 규모는 '19년말 기준 9천억 달러(1,094조원)이며 향후 '28년까지 2조 달러 이상으로 확대 전망
- 국내 ESG 투자규모 또는 약 33.2조원으로 매년 확대추세
- * 공적연기금, 공제회, 우정사업본부 및 공모펀드 등으로 주로 투자

▶ 국제기구, 개별국가

- 금융안정화위원회(Finance Stability Board, FSB)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권고안(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마련 등
- 전세계 중앙은행·감독기관의 녹색금융협의체 구성('17.12월)
- 국내에도 국무총리 소속 녹색성장위원회에서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환경부, 금융위* 등에서 정책 수행
- * 금융위는 '21.1월 ESG 책임투자기반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환경부와 공동으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12개 실천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

▶ 금융회사

- 해외 금융회사(Barclays, Blackrock)은 물론, 국내 기관* 및 금융회사가 각각 ESG 관련 업무를 수행

* (예) 국민연금 ESG 관련 52개 지표 선정하고, 약 800개 기업 대상 연 2회 평가 → 책임투자 규모 또한 19년 기준 32.2조원으로 15년(6.9조) 대비 3.7배 증가

▶ ESG 관련 인프라

- 개별 금융상품의 녹색 여부 판별을 위한 녹색 분류체계(Green Taxonomy)이 구축되어 활용 중
- 또한, 각국 증권거래소에서는 ESG 공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였으며, ESG 채권 가이드라인 및 외부평가제도도 활용

* 국내에서도 한국거래소가 '21.1월 ESG 정보공개 가이드선을 제정

□ ESG 평가 관련 문제

▶ ESG 평가 현황

- ESG 정보 취득 및 분석은 고비용,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극소수 대형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ESG 평가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평가 결과 활용

* Sustainalytics, Bloomberg, Thomson Reuters, RobecoSAM, Moody's, S&P, Fitch

▶ 문제점

- ESG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여 평가지표 기준이 명확치 않고, 정량적인 지표에 의존함에 따른 평가에 한계 존재

□ 시사점

- ▶ ESG 금융에 대한 국내외의 요구와 지속적인 확대 추세를 고려할 때, 금융·보험업계는 ESG 관련 전문인력 개발을 통해 ESG 금융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

- ▶ 장기적으로 대학들과 연계하여 ESG 교육이 확대될 필요

* (예) 대학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에 ESG 관련 교과목 신설

- ESG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신설을 고려할 수 있음



I. 논의 배경

▶ 금융에서 E(Environment, 환경), S(Social, 사회), G(Governance, 지배구조)에 대한 고려가 최근 국내외적으로 크게 확산하는 추세

- 환경오염,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으로 과거 주류 사조였던 주주 자본주의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 주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 전체의 이익을 고르게 추구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 ESG 경영은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목표로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부분에 의미있는 자원을 배분하는 경영을 뜻하며, 금융은 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ESG 투자를 통해 개별기업 차원에서도 장기적인 수익성 강화와 비용 감소 효과를 통해 지속가능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와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ESG 금융 확대 추세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음
- 이에 따라 1990년 최초의 ESG 인덱스가 등장한 이후 주식에 대한 지속가능 투자가 2006년 UN 사회책임투자원칙* 발족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 * UN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의 책임투자원칙으로, 투자분석과 결정 과정에서 ESG 이슈를 적용하고 투자대상에 ESG 이슈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 등의 내용으로 구성. 3000여개의 기관 투자자가 가입
-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서 모든 당사국이 동의하는 온실가스 감축방안이 합의*된 이후 특히 기후·환경 변화가 가져오는 금융리스크의 발생과 영향에 대한 문제가 큰 주목을 받고 있음
 - *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온도가 2°C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정하는 '국가결정기여(NDC)'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미국은 NDC로 2030년까지 26~28% 절대량 감축을 약속했고,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절대량 40% 감축을, 중국은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출량 기준 60~65% 감축을, 우리나라는 2030년의 목표연도 배출 전망치에 대비 37% 감축을 약속했음.

-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및 국제기구(FSB*, BIS**, BCBS***, IAIS**** 등)를 중심으로 기후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f Banking Supervision)

**** 국제보험감독자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 국내에서도 녹색금융 추진 TF 운영 및 녹색금융 추진계획(금융위, 2021.1월)이 발표되는 등 정부 차원에서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금융리스크에 활발하게 대응하고 있음

▶ ESG에 관한 금융업계 외부의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자산운용, 상품개발 등에 종사하는 인력의 공급·개발 측면에서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ESG의 개념, 최근 동향, 문제점을 상세히 살펴보고 업계 인력 공급·개발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II. ESG 금융 관련 개념

1. 지속가능 금융

▶ **(개념)**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ESG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지속가능 금융을 통해 기업으로 하여금 의사결정 과정과 경영 활동을 함에 있어 ESG 요소들을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체계

*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과 같은 의미로, 현재 세대의 필요(생활수준 향상, 빈곤 퇴치, 보건, 교육, 존엄, 자유 등)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미래세대의 필요 충족을 가능케 하는 발전과정을 의미

- ESG 위험을 관리하고 투자와 대출기회를 포착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여 경제와 사회에 더 좋은 편익을 가져다주는 ‘더 좋은 금융(better finance)’이면서,
- 좋은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촉진 등을 추구하는 ‘더 좋은 발전(better development)’에 기여하는 금융

▶ **(지속가능 금융의 의의)** 금융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자금배분, 사후감독 관여, 위험의 분산·관리 기능을 주도하는 역할 수행

- 즉, 지속가능 금융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 및 프로젝트로부터 자금을 회수한 후, 이에 도움이 되는 사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 및 지원을 하는 것이 핵심 전략

2. ESG 투자

▶ **(개념)** ESG 투자는 “지속가능 투자”(Sustainable investment), “사회책임투자”, “윤리적투자”, “임팩트투자” 등으로 표현되는데, 다양한 자산군에 적용될 수 있는 다차원적 평가체계를 가리킴

▶ **(시초) 주로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윤리적·종교적 이유*로 기업 또는 전체 산업분야를 배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이었음**

* 예) 담배, 술, 군수품, 도박 등이 적용 대상

▶ **(접근방식) 적극성 수준 정도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가능**

- ① 특정한 가치를 위배하는 회사를 제외(석탄, 담배, 무기 및 기타 죄악(sin) 주식에 투자)하고/또는 ESG 요소에 대한 가치를 지키거나 성과가 좋은 회사를 적극적으로 골라내는 방식
- ② 사회적 또는 환경적 목표를 가진 조직이나 프로젝트에 대해 임팩트 투자 수행
- ③ ESG 요소를 전통적인 재무 분석에 통합
- ④ ESG 관련 주주 제안, 의결권 행사 등 직접적인 활동을 통해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 혹은 개입하는 적극적인 corporate engagement 방식도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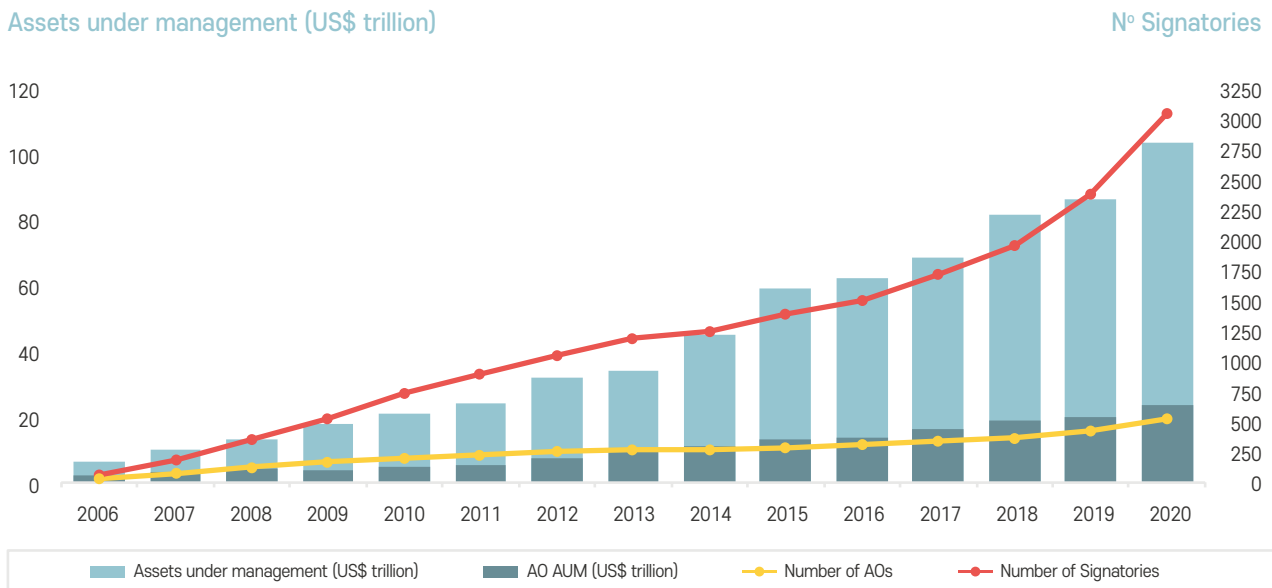
III. ESG 금융 동향

1. 개 관

▶ 글로벌 ESG 투자자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사례)** UN 사회책임투자원칙(PRI) 참여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해당 책임투자 대상 자산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
 - UN PRI 서명기관은 2020.3월 기준 3,038개로 동 기(2,092개) 대비 29% 증가
 - PRI 서명기관이 대표하는 전체 자산운용 규모도 2020.3월 기준 103.4조 달러로 동 기 (86.3조 달러) 대비 20% 증가
- 특히, 최근 들어 국내 녹색채권 발행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공공기관에 편중되었던 ESG 채권 발행은 일반기업으로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음

[표 1] < UN PRI 서명기관의 운용자산규모(AUM) 추이 >



* 주) 2020년 자료는 자회사 및 외부 운용 자산으로 인한 이중계상 12.3%를 제외한 수치

** 출처: UN PRI website

2. ESG 금융상품

< 해 외 >

1 녹색채권

- 최초의 녹색채권은 '07년 유럽투자은행(EIB)이 발행한 'Climate Awareness Bond'* (8억 달러)
- * 해당 채권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또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발행
- 이후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국제기구 중심으로 발행
- '13년부터 미국 은행 Bank of America, 프랑스 전력회사 EDF, 스웨덴 부동산회사 Vasakrona 등의 민간 부문에서도 녹색채권을 발행하면서 녹색채권시장 확대
- ※ 녹색채권 발행규모 : ('07년) 8억 달러 → ('13년) 113억 달러 → ('19년) 2,589억 달러(284조원), '19년까지 누적 7,763억 달러(854조원)

2 사회적 채권

- 녹색채권이 도입된 '07년 이후 자금 사용처가 사회적 목적인 채권을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발행되었고, '15년 스페인의 Instituto de Credito가 최초의 공식적 사회적 채권으로 인정
- 사회적 채권은 프로젝트 시행에 따른 영향을 정량화하기 어렵고, 단기간 내 성과를 창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발행이 녹색채권 대비 저조한 측면
- ※ 사회적 채권 발행규모 : ('18년) 150억 달러 → ('19년) 190억 달러

< 국 내 >

1 (발행현황) '21.1월 현재 국내에 상장된 ESG 채권 잔액은 약 83.5조원

- 채권종류별 비중은 사회적채권이 전체의 89.7%인 74.9조원으로 가장 크고, 지속가능채권 6.7%(5.6조원), 녹색채권 3.6%(3조원)
- * 글로벌 ESG 채권시장과 달리 국내 ESG 채권시장은 녹색채권보다 사회적 채권에 편중. 이는 국내의 ESG 채권 발행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가운데, 한국주택금융 공사의 MBS가 사회적 채권으로 인정받은 것에 기인

- 2 (발행기관) 국내 ESG 채권의 주요 발행주체별 발행비중은 주택금융공사가 포함된 공공기관이 92.5%, 은행 6.0%, 여전사 1.2% 순이며, 일반기업 비중은 0.3%로 낮음

(2) ESG 펀드

< 해 외 >

- ▶ (개요) 글로벌 ESG 펀드 규모는 '19년말 기준 9,000억 달러(1,094조원)이며 향후 '28년까지 2조 달러 이상으로 확대 전망*

* 블랙록 전망

- 글로벌 ESG ETF는 패시브 투자 인기에 힘입어 상장 종목수가 60개('15년)에서 270개('19년)로 급증

< 국 내 >

- ▶ '19년말 기준 연기금 및 공모펀드 등 한국의 ESG(SRI) 투자 규모는 약 33.2조원으로 매년 확대되는 추세

[표 2] < 한국 SRI 시장 규모 >

(단위 : 십억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공적연기금 SRI 규모 (A)	6,622.2	7,055.9	26,974.3	32,459.5
공제회 SRI 규모 (B)	0.0	40.0	100.0	119.0
우정사업본부 SRI 규모 (C)	131.8	150.7	123.0	242.2
공모펀드 SRI 규모 (D)	335.5	474.0	551.9	414.5
한국 SRI 시장 규모 (E)	7,089.5	7,720.6	27,749.2	33,235.2

* (자료) 한국사회책임투자 포럼

3. 국제기구, 개별국가

< 해외 : 국제기구 등 >

▶ (금융안정위원회, 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기후변화재무정보공개 권고안 (TCFD*) 마련

*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의 요청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가 2015년 12월에 만든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협의체. TCFD에서 금융기관과 기업의 기후 변화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여 권고함

▶ (중앙은행·감독기관의 녹색금융협의체, NGFS)

- 중앙은행·감독기관의 녹색금융협의체 (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NGFS)는 녹색금융 촉진을 위해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의 중앙은행과 금융 감독기관을 주축으로 2017년 12월 발족된 국제단체로
 - 2019년 3월 현재 전 세계 4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 결제은행(BIS)을 포함한 4개 기관이 옵저버로 참여

< 해외 : 개별국가 >

▶ (프랑스)

- 정부 녹색채권 발행 (2017년 발행 2035년 만기 70억 유로)
- 은행 부문 기후 관련 리스크 감독 (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과 건전성감독원(Prudential Supervision and Resolution Authority))

▶ 이외에도 개별국가 차원에서 녹색금융 네트워크 구성, 녹색금융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ESG 금융을 확대하고 있음

< 국 내 >

- ▶ **(공동)** 국무총리 소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9)에서 “금융기관이 경영 전반 및 자금 운용 시 기후 변화 리스크를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확대”를 발표
 - ▶ **(환경부)** 녹색산업 혁신 및 녹색경제로의 전환 촉진을 강조하며 녹색금융 제도 정착, 녹색기업 성장지원, 녹색일자리 창출 등의 목표 제시
 - ‘20.12월 금융위와 함께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마련
 - ‘21년 상반기 중 K-Taxonomy(한국형 녹색금융분류체계) 발표 예정
 - ▶ **(금융위)** ESG 책임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ESG 정보 공개 확대 등을 추진
 - ‘21.1월, ESG 책임투자 기반 조성방안* 발표
 - *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방안” 의 일환
 - PRI 서명기관이 대표하는 전체 자산운용 규모도 2020.3월 기준 103.4조 달러로 동 기 (86.3조 달러) 대비 20% 증가
 - ‘21.1.25,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 발표(환경부 공동)
 -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12개 실천과제* 제시
- * ① 정책금융기관별 녹색분야 자금지원 확충전략 마련, ② 정책금융기관별 녹색금융 전담 조직 신설, ③ 정책금융기관 간 그린금융협의회 신설, ④ 기금운용사 선정지표에 녹색 금융 실적 반영, ⑤ 녹색분류체계 마련, ⑥ 금융권 녹색금융 모범규준 마련, ⑦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시범사업 시행, ⑧ 금융회사에 대한 기후리스크 관리·감독계획 수립, ⑨ 기업 환경정보 공시·공개 단계적 의무화, ⑩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검토, ⑪ 환경 표준 평가체계 마련, ⑫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4. 금융회사

< 해 외 >

▶ **(Barclays, 영국)** 기후변화 전략수립 및 상품개발을 담당하는 그린 बैं킹위원회 (Green Banking Council)를 운영하며 녹색채권, 그린 홈모기지 등의 기회를 발굴하며, 기후 리스크를 기존 신용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 통합

- 또한 화석 연료업계의 최대 대출업자*임에도 불구하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0'을 목표로 하겠다고 발표('20.3.20.)

* Barclays는 화석 연료 산업에 '16 - '19년 사이 약 1,200억 달러(146조원)의 대출진행(유럽 은행 중 가장 많은 금액)

▶ **(Blackrock, 미국)** 미국 블랙록*은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을 '20년 투자 포트폴리오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고 발표

* 블랙록은 약 7조 달러(8,500조원)에 이르는 투자자산을 운용 중

- 블랙록은 기후변화 리스크는 구조적·장기적 위험요소로서, 현대 금융의 핵심 전제들도 재평가 되어야한다고 공표
- '20.1월 블랙록의 래리핑크 CEO는 화석 발전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25% 이상인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발표, TCFD 권고안에 기반을 둔 기후변화 성과 공개를 투자기업에 요구

< 국 내 : 관련 기관 >

▶ **(한국투자공사)** 책임투자를 수행하기 위해 책임투자 업무지침 제정 및 3억 달러 (3500억원) 규모 ESG 전략펀드 운용 시작('19.10)

▶ **(한국거래소)**

- KRX ESG 사회책임경영지수(S) 발표('17.12.13)

- 사회책임투자채권(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전용 세그먼트 오픈('20.6.15)
- KRX 'ESG 정책자문위원회' 구성('20.11.3)
- 'ESG 정보공개 가이드스' 제정('21.1.18)

▶ **(국민연금) 국민연금법*과 기금운용지침**을 통해 ESG 요소를 고려하며 책임투자를 확대(ESG 통합전략 추진)**

- 국민연금의 책임투자(직접운용 및 위탁운용) 규모는 '19년 기준 32.2조원으로 '15년 6.9조원 대비 3.7배로 증가
- 국민연금은 ESG 관련 52개 평가 지표*를 선정하고 약 8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연 2회 평가 실시
- * 환경(E)에 관한 3가지 ESG 이슈와 이에 따른 평가지표 12개
사회(S)에 관한 5가지 ESG 이슈와 이에 따른 평가지표 21개
지배구조(G)에 관한 5가지 ESG 이슈와 이에 따른 평가지표 19개

< 국 내 : 금융회사 >

▶ **(KB금융지주) ESG 위원회를 신설('20.3월)하여 기업대출과 투자 심사 반영 시 ESG 요소를 고려하기로 결정**

- 계열사인 국민은행은 '21.5월 금융상품과 친환경 공헌활동을 연계한 'KB 그린웨이브 1.5도 패키지' 출시
- **(내용)** 정기예금 가입 시 종이통장 미발행 및 별도 출금서비스 등록한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정기예금 한 좌당 일정액을 기부하여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사용

▶ **(신한금융지주) 'ECO Transformation 20-20'이라는 친환경 비전을 설정하여 2030년까지 녹색산업 20조원 투자 및 온실가스 20% 감축 목표를 수립했으며**

-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경제 전환에 기여하기 위해 환경가치와 기업가치 창출간의 상생 선순환을 표명
- 유엔 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및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에 가입했으며 2018.9월 국내 최초 TCFD 권고안 지지 서명을 함
- 2017년부터 ESG 리스크 관리체계를 도입했으며 그룹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제정해 임업, 광업, 담배, 무기군수 등 산업에 대한 투자규정을 마련
- 계열사인 신한은행은 '21.4월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 자동차 전용 구매 특화 대출상품인 '신한 그린 마이카' 출시

▶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2021년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를 설립하고 ESG 사업을 효과적,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

▶ **(NH투자증권)** 2021.2월 증권업계 최초로 원화 ESG 채권 1,100억원 발행

5. ESG 관련 인프라

(1) 녹색 분류체계 (Green Taxonomy)

1 개요

- **(개념)** 녹색 경제활동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개별 금융 상품의 녹색 여부 판별에 사용됨
 - 무엇이 녹색 경제활동인지 정의함으로써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간 정보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는 녹색금융의 기본 인프라
- **(목적)**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녹색 경제활동의 발굴 및 시행을 용이하게 하며, 그린워싱*을 최소화하기 위함
 - * 실제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이 별로 없음에도 친환경을 내세워 허위·과장하는 기업 활동
 - ‘녹색’ 정의의 상이함에 따른 녹색시장의 지역화·분절화 문제 해소 가능

2 EU 사례 및 국내 현황

- **(EU 사례)** EU는 2018.3월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에 관한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분류체계의 수립을 촉구함으로써, 2020.3월 지속가능금융에 관한 기술전문가 그룹(TEG)이 택소노미(Taxonomy) 보고서 발간
- **(국내 현황)** 금융위원회와 환경부가 이끄는 녹색금융TF가 2020.4월~8월까지 K-Taxonomy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

(2) ESG 공시 가이드라인

< 해 외 >

▶ 각국의 증권거래소는 GRI Standards, SASB Standards 등을 준용하여 ESG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함으로써 기업들에 공시 기준을 제시함(56개 거래소)

- 글로벌 리포팅 기준(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2016))는 투자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ESG 정보 공개 지표 SET을 제시
 - 경제 분야는 6개의 주제와 13개 지표, 환경 분야는 8개의 주제와 30개 지표, 사회 분야는 19개 주제와 34개 지표로 구성
-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 기준[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tandards (2018)]는 산업별로 재무적으로 중요한 ESG 정보 공개 지표를 제시
 - 11개 산업군 77개 산업별 ESG 정보공개지표를 제시하였으며 지배구조·사업모델·환경·사회·인적자본 등 총 26개 ESG 정보 공개 주제로 구성

< 국 내 >

▶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의 ESG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하여 'ESG 정보공개 가이드스'를 제정('21.1.18)

[표 3] < 「ESG 정보공개 가이드스」 목차 >

구 분	주요 내용
1. 목적	가이드스 제정의 목적
2. ESG의 개념	ESG의 개념, 정보 공개의 필요성
3.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ESG 이슈 관리를 위한 이사회·경영진의 역할
4. 정보공개원칙	ESG 정보 공개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
5. 중요성	중요성의 개념 및 중요성 평가 절차
6.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절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보고서 작성 절차
7. 공개지표	주요 정보공개 표준 및 권장 공개지표
[참고] 주요 표준의 공개지표	WFE, TCFD 및 GRI의 공개지표

(3) ESG 채권 가이드라인

- ▶ ESG 채권에 대한 공인된 정의 부재가 그린 워싱에 대한 우려로 이어져 시장의 성장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와 기후채권 이니셔티브(CBI*), EU 등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각국 사정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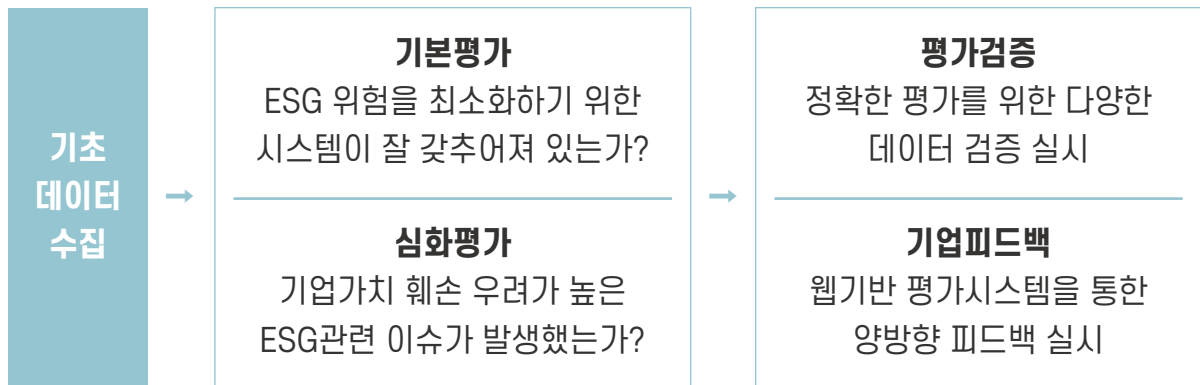
* Climate Bond Initiative: 영국의 국제 NGO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특화하여 활동

- **(녹색채권)** 국제적으로 ICMA의 녹색채권원칙, EU의 녹색채권 기준, CBI의 기후채권표준 등의 ESG 채권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며 최근 한국 환경부에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발간('20.12월)
- **(사회적채권)** ICMA의 사회적채권원칙 등
- **(지속가능채권)** ICMA의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 등

(4) 외부 평가 제도

- ▶ **(현황)** 한국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서스틴베스트, 대신경제연구소 등이 수행하고 있으며, 각 사마다 독자적 평가 모형을 구축. 최근 금융사 중 최초로 한화자산운용이 자체 ESG 평가 시스템을 개발
 - **(평가 대상)**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 함
 - **(평가 방법)** 자체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독자적 평가 프로세스 구축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다음의 프로세스를 가지며, OECD 기업 지배구조 원칙, ISO26000 등 국제 기준과 국내 법제 및 경영 환경 반영



- ▶ **(평가결과의 활용)** 한국거래소의 ESG 테마지수의 종목구성에 활용되고 있으며 기관 투자자의 사회책임투자 자문에 활용되고 기업 및 정부에 대한 정책제언에 활용



IV. ESG 평가 관련 문제

1. ESG 평가 현황

▶ ESG 정보 취득 및 분석은 고비용,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극소수 대형기관을 제외한 투자자들은 ESG 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 글로벌 대형 ESG 평가사로는 Sustainalytics, Bloomberg, Thomson Reuters, RobecoSAM 등이 있으며, 전통적인 신용 평가사인 Moody's, S&P, Fitch도 ESG 점수 형태를 제공 중 (IMF, 2019)

2. 문제점

(1) 평가 범위의 다양성

▶ ESG 평가의 가장 큰 한계는 ESG가 포괄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임

- 이로 인해 개별 카테고리 내 평가지표가 표준화되지 않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게 됨

[표 4] <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슈의 주요 범위 >

핵심 요소	핵심 테마	핵심 이슈
환경	기후 변화	· 탄소 발자국
		· 기후변화 사건에 대한 취약성
	자연 자원	· 에너지 효율
		· 물 효율
		· 원자재 추출
		· 토지 사용
	환경 오염 및 쓰레기	· 독성물 배출
		· 폐수 관리
		· 유해물질 관리
		· 대기 질

핵심 요소	핵심 테마	핵심 이슈
사회	기회와 정책	· 재생에너지
		· 청정에너지
		· 녹색건물
		· 환경 및 종다양성 목표와 투자
	인적 자본	· 직장 건강 및 안전
		· 자기개발 기회
		· 노동자 참여, 다양성, 포용성
		· 노동 관행(임금, 근로여건)
	생산 책임	· 생산물 안전 및 품질
		· 판매 관행 및 상품 라벨링
		· 고객 신분보호와 데이터 보안
		· 상품 접근성
	관계	· 커뮤니티
		· 정부
		· 시민사회
지배구조	기업 지배구조	· 이사회 구조와 책무
		· 경영진 보상과 경영 실효성
		· 회계 및 공시 관행
		· 소유와 주주 권리
	기업행태	· 부패 관리
		· 시스템리스크 관리
		· 수익의 질
		· 경쟁 행위
		· 비즈니스 환경(법, 규정) 관리
		· 세금 및 특수관계자 거래 투명성

(2) 불완전한 정보 활용 문제

- ▶ ESG 평가 시 불완전·불충분한 정보나 대부분 획득 가능한 정량적 정보에만 의존하여 지표를 산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 ▶ 또한 평가 가능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상당한 편이(bias)가 존재할 수 있음
- ▶ 한편 평가 시 지표의 가용성과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성과(output) 지표보다는 투입(input) 지표를 주로 활용하는 한계 존재

⇒ 상기 문제로 인해 ESG 평가 점수의 신뢰성은 높지 않으며 ESG 평가기관 간 결과의 일관성도 매우 낮게 됨



V. 인력 개발 관련 시사점

▶ ESG 평가와 관련한 상기 문제들이 ESG 금융 발전의 일시적인 장애가 될 수 있으나, ESG 금융에 대한 국내외의 요구와 지속적인 확대 추세를 고려할 때, 금융·보험업계는 ESG 관련 전문인력 개발을 통해 ESG 금융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

- 이를 위해 금융회사 또는 금융·보험업계 교육훈련기관 등은 상품 개발 또는 자산운용 담당 인력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훈련을 활발하게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
- 아울러 세부적인 교육훈련 내용은 ESG 금융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감에 따라 수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

< 참고 : ESG 전문인력 수요 관련 해외 동향 및 해외 ESG 교육 사례 >

1. ESG 전문인력 수요 관련 해외 동향

▶ ‘21년 6월초 파이낸셜타임즈(FT) 보도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경영 컨설팅 업체에서 부티크 자문사, 헤드헌팅 업체, 기업 경영진 자리에 이르기까지 ESG 전문가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인력 수요가 공급을 크게 앞질러

⇒ 치열한 ‘ESG 인재 영입 전쟁’이 불가피할 전망

- 이러한 인재 영입 전쟁의 원인은 글로벌 거대 기업 중 20% 이상이 탄소 배출량 제로(‘0’)화를 약속하는 등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영향과 지배구조 등 非재무적인 분야의 성과를 강조하기 때문
- 거대 기업뿐 아니라 사모펀드, 회계법인 등에서도 ESG 전문가 수요가 커지는 추세
 - 사모펀드의 경우 사업에 강력한 지속가능성 또는 ESG 스토리가 없다면 기업공개(IPO)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ESG 전문가를 매우 높은 지위에 채용하고자 함
 - 회계법인의 경우 기업들이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재무적 지표까지 감사받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ESG 전문가 수요를 늘리고 있음

2. 해외 ESG 교육 사례

< CFA 영국협회 주관 교육 >

- ▶ **(과정명)** “CFA Certificate in ESG Investing”
- ▶ **(교육대상)** ESG관련 금융상품 판매, 유통, 자산운용, 상품개발, 금융자문업, 컨설팅, 리스크관리 업무담당자
- ▶ **(교육시간)** 130시간
- ▶ **[교수요목(Syllabus)]**
 - ① ESG시장 현황
 - ② 지배구조 요소
 - ③ 환경 요소
 - ④ 사회 요소
 - ⑤ ESG 분석, 가치평가 및 적용
 - ⑥ 경영 및 스튜어드십 코드
 - ⑦ ESG 포트폴리오 구성 및 관리
 - ⑧ 투자 지침, 포트폴리오 분석 및 고객(투자내역) 보고
- ▶ **(교육방식)**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수강 가능

< UN PRI Academy >

- ▶ **(교육시간)** 책임투자 입문, 기초, 분석 모두 수강 시 21~25시간 소요
- ▶ **[과정별 교과목단위(Course Module)]**
 - ① 책임투자 입문 (Getting Started in RI)
 - (1) RI 개요
 - (2) 환경 이슈와 투자
 - (3) 사회 이슈와 투자
 - (4) 지배구조 이슈와 투자
 - (5) 적극적 주주권 행사
 - (6) 금융시장 분석과 RI
 - (7) 고정 수익 분야에서의 RI 적용

(8) 사례연구

② 책임투자 기초 (Foundations in RI)

- (1) RI 개요
- (2) RI와 환경
- (3) RI와 사회
- (4) RI와 기업 지배구조
- (5) RI와 적극적 주주권 행사
- (6) RI와 금융시장 분석
- (7) RI 프로그램 활용/도입
- (8) 사례연구

③ 고급 책임투자 분석 (Advanced RI Analysis)

- (1) 개요
- (2) 사례연구
- (3) STEP 1: ESG 요소 파악
- (4) STEP 2: ESG 접근 및 분석
- (5) STEP 3: ESG 모델 및 ESG 모델 적용
- (6) ESG 정보 활용
- (7) ESG 정보/데이터 소싱

④ 신탁관리자를 위한 책임투자 (RI for Trustees)

- (1) 개요
- (2) 기업의 지향점 및 가치
- (3) 투자 원칙
- (4) 해외 참고 사례
- (5) ESG 활용 방식
- (6) 주요 ESG 이슈
- (7) 정책 마련 및 도입
- (8) 투자자산운용사와의 협력을 통한 RI 강화
- (9) RI 정보 공개
- (10) RI 실현 방안

▶ (교육방식) 온라인

▶ 장기적으로 원활한 전문인력 공급을 위해서는 금융·보험업계의 주요 인력공급처인 대학에 ESG 교육이 확대될 필요

- 한양대 MBA는 2021학년도 2학기부터 Professional MBA 과정 내에 ESG 트랙을 신설할 예정인데, ESG 전문교육과정을 대학 내에 신설하는 변화가 다른 대학으로도 확산될 필요
- 아울러 대학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에서 ESG와 관련한 교과목을 다수 신설하여 취업준비생에게 ESG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 한편 ESG 금융전문인력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관련 지식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자격제도 신설을 고려할 수 있으며,

- 아직, ESG 평가에 대한 일관성 결여 등 ESG 금융역량에 대한 표준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전문 역량 검증차원에서 검토할 필요

| 참고 문헌 |

[국문자료]

금융연구원. 2021.

『국내외 ESG 투자 현황 및 건전한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사점』

한국금융투자협회. 2021.

『ESG 금융 관련 국내외 동향 및 ESG 채권 활성화를 위한 협회 역할』

자본시장연구원(KCMI). 2021.

『기업의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온라인자료]

CFA Institute

(<https://www.cfainstitute.org/en/programs/esg-investing/>검색일: 2021. 2. 22)

UN PRI Academy

(<https://priacademy.org/>검색일: 2021. 2. 22)



ISC 관련 최신 조사연구 자료 목록

※ 자료 제목 클릭 시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제 목	발행기관	발행일
최근 미국 금융시장 동향 및 이슈	금융감독원	2021-04-02
글로벌 은행산업 트렌드	국제금융센터	2021-04-05
2020년 단기금융시장 리뷰	한국은행	2021-04-12
유튜브 주식채널의 정보효과와 위험요인	자본시장연구원	2021-04-13
2021년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	금융감독원	2021-04-14
미국 증권회사의 내부통제 발전과정과 특징	자본시장연구원	2021-05-03
美 바이든 행정부의 대유럽 정책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05-04
미 연준 2021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의 주요 내용	한국은행	2021-05-07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금융부문의 대응	주택금융연구원	2021-05-14
ESG 평가 체계 개선 방향	자본시장연구원	2021-05-17
경영진 보상에 대한 ESG 요소 반영 추세	자본시장연구원	2021-05-17
4월 FOMC, '테이퍼링 논의 필요/공급부족 장기화 우려' 등 제기	국제금융센터	2021-05-20
중국의 암호자산 규제 강화와 시사점	한국은행	2021-05-24
고령 금융소비자와 금융 디지털전환	보험연구원	2021-05-24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21-05-24
ESG 평가 체계 현황과 특성 분석	자본시장연구원	2021-05-26
지속가능금융 확산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예금보험공사	2021-05-28
ESG채권의 특성 분석과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연구원	2021-05-31
경기 회복 강화 속 소프트패치 가능성 우려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2021년 2분기)	현대경제연구원	2021-06-04
금리 상승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보험연구원	2021-06-07
대출형 사모펀드시장 현황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2021-06-07
미국 주식-채권 간 상관관계 변화 가능성 및 시사점	국제금융센터	2021-06-07
디지털 플랫폼의 경제학파 : 개인, 기업, 국가와 데이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1-06-09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확대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시사점	금융결제원	2021-06-11
디지털 전환이 생산성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021-06-13
보험산업의 동태적 효율성 제고 방안	보험연구원	2021-06-20
미국과 EU의 가상자산거래자 보호제도의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21-06-22
FDIC, 예금보험에 대한 허위 표시 금지 등 관련 규정안 발표	예금보험공사	2021-06-01
금융취약성지수(FVI) 신규 편제 결과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21-06-22

